

# 대중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 과 수용자 '해독'

—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에 대한  
윌리스의 분석틀 적용을 중심으로

백 선 기\*

## 1.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념 대립이 사라졌다는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시 권력'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미시 권력'은 권력의 활동 영역이 국가 기관의 협소한 억압적 영역보다는 일상 생활의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시 권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잠재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의 정치'이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서 미시 권력을 형성하는 것은 다름아닌 '대중 문화'의 공간이다. 포스터모던한 시대의 문화는 단순히 하부 구조의 반영물인 상부 구조의 차원이 아니며, 문화 자체가 정치인 동시에 문화와 정치의 영역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현실보다 더욱더 현실적인' 대중 문화의 공간 속에서 실재를 소비하고 있으

\*본 논문의 작업에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석사과정) 이훈주 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며, 대중 문화의 메시지들이 이루는 비확실적이고 모순된 이미지들 속에서 부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구와 사실의 경계가 모호한 일상 속에서 현실의 철학과 사회학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중 문화'를 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 같다. 90년대 이후 팽창한 포스터모더니즘의 사회학은 '대중 문화'를 해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수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학 역시 이러한 학문적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 기존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대중 문화의 상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비판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정치경제학적 시각, 대중 문화 텍스트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등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위와 같은 일련의 연구들은 자본주의 대중 문화의 정치성과 이념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었다. 특히 기호학적 텍스트 분석은 대중 문화 텍스트 속의 기호와 메시지를 분석함으로써 그 기저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중 문화의 상품성과 이데올로기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학문적 논의들은 90년대 이후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구조주의 기호학 분야에서는 기호가 고정된 의미와 연결된다는 시각과 텍스트가 일관된 의미 산출의 총체라는 논의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현실의 대중 문화 산물들은 하나의 기의와 연관되지 않은 무수한 기표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중 문화의 텍스트들은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기보다는 하나의 텍스트 속에도 모순된 의미가 충돌하고 있으며, 텍스트들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텍스트와 사회의 접촉에 따라 무수히 새로운 의미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와 수용자 집단의 하위 문화가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헤게모니의 문제가 문화주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시각에서 논의되어왔다. 문화주의적 시각의 대중 문화 연구는 대중 문화 산물이 다양한 수용자 집단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용자 해독에 관한 연구들

은 주로 대중 문화에 대한 개인과 집단들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엘리트주의적 시각의 텍스트 분석에 대한 경계 때문에 텍스트와 집단 연구간의 유기적 연결을 시도하지 못했다. 즉 텍스트 자체의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집단들이 행하는 다양한 해독의 양상만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 문화 텍스트의 분석과 수용자 집단의 해독에 관한 문제를 관련지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대중 문화 텍스트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던 「Comeback Home」을 중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한다. 특별히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텍스트의 사회적 영향력과 텍스트 자체의 다의적 의미 구조 때문이다. 먼저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 앨범은 발매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을 불러일으켰다. 텍스트의 파격적인 내용은 공론과의 마찰을 빚었으며(「시대 유감」), 청소년들의 '서태지 신드롬'을 분석하고자 하는 언론과 학계의 논의들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Comeback Home」의 표절 여부까지 덧붙여져 대중 가요와 관련하여 이만큼 풍부한 담론이 나타났던 때는 일찍이 없었을 정도였다.

다음으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지닌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노래 가사의 파격성으로 인해 부패한 기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문화적 전사의 지위로 승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담고 있는 목소리가 저항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들도 많다. 이러한 의견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저항'은 대중 문화의 자본주의적인 유통 구조 속에서 많은 이윤 획득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거짓 거부의 상품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논란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텍스트가 가진 다의적인 의미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위와 같이 상반되는 주장들은 대중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 문화 속에 존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대중 문화 텍스트는 다의적이며 이 속에는 현실을 꿰뚫어보는 '간파 *penetration*'의 속성과 현실 순응적인 '제약 *limitation*'의 속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동시에 모순적인 의미 구조 속에서 청소년 집단이 생산하는 적극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 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대중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

텍스트의 '다의성'이란 개념은 피스크 Fiske가 텔레비전 텍스트의 대중성과 다의성을 논하면서 주장되었다. 피스크의 초기의 텔레비전 연구들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특정 텍스트에서 부호화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데올로기적 비판이 주가 되었고, 여기서 시청자는 알튀세르식의 '호명 방식'에 따라 구성되는 주체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스크에게 텔레비전은 대중적이 되기 위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수용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매체이고, 이 과정에서 텍스트는 '다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스크의 '다의성'에 대한 주장들을 소쉬르 기호관의 부분적인 비판과 블로시노프와 바흐친의 사회적 기호관을 채택하면서 형성하게 된다. 피스크에 따르면 소쉬르 언어학의 제 1원리인 '기호의 자의적 본질'이야말로 의미 투쟁의 문제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인식은 언어에 의해 자의적으로 재현된 가공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권력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언어가 현실의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자의성) 이데올로기와 결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피스크는 소쉬르가 그의 기호학에 내재한 사회적 정치성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소쉬르는 스스로 언어가 사회적 사실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말했지만, 그의 탐구를 언어 체계에 몰두하여 사회 체계 속에서의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쉬르는 기의가 특정 기표와 결합됨으로써 의미가 생성되고 이 생성된 의미는 단순히 사회적으로 유통된다고 보았다. 즉 기호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유통되기 전에 이미 고정된다는 것이 소쉬르의 주장이다.

그러나 블로시노프 Volosinov나 바흐친 Bakhtin과 같은 학자들은 기호의 의미는 이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한다. 블로시노프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한 사회의 어떤 현상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호가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블로시노프는 이데올로기나 기호가 한 사회의 모든 계급들에게 동일하게 의미화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호가 각각의 사회 집단의 의식에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기호는 사회적으로 소통되어야 한다. 즉 기호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의존하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생성된다. 즉 개인이나 집단들간의 기호적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의식이 구성되고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와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과정에서 기호의 의미는 '굴절' 된다. 원래 기호가 가진 의미는 사회 관계 속의 다양한 집단들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호의 굴절'은 기호의 '다억양성 *multi-accentuality*'이란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블로시노프는 기호의 '다억양성'이란 개념을 통해 의미 투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억양성'이란 한 사회의 여러 상이한 계급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여러 다른 계급들이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므로 모든 이데올로기적 기호 속에서 여러 가지 상이한 억양들이 상호 교차하게 된다.

각각의 사회 계급이나 집단들은 동일한 언어 공동체에 다르게 관련되며, 단어와 의미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이 속하는 하위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부단히 투쟁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기호의 의미가 다양화되는 기호의 '다어휘성'이 발생할 수 있다. 기호 사용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의미의 고정성에 대한 저항은 다양한 사회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기호는 '다억양적'이고 '다어휘적'인 것이 된다.

블로시노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바흐친 역시 기호의 '다성주의 *multivocalism*'를 주장한다. 바흐친에게 하나의 기호는 현재와 과거,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진 집단들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이질적인 것이다. 바흐친의 '다중 언어 *beteroglossia*' 개념은 하나의 언어 공동체가 하나의 언어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사회 분파들이 그 공동 언어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블로시노프와 바흐친에게 기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전제하는 대화적인 것이며, 사회적 갈등과 타협이 형성되는 헤게모니적이고 유동적인 현상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의미의 기호관을 계승한 피스크는 더 이상 텔레비전을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닫혀진 텍스트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텔레비전의 텍스트에는 텍스트내에서 선호되는 '지배적인 의미'와 선호되지 않는 '부분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텍스트 구조에 의해 선호되지 않는 열려진 의미는 텔레비전 수용자에 의해 구성되는 '틈새와 빈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sup>1)</sup>

---

1) Fiske, J., "Television: Polysemy and Popular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3, 1986, p.45.

피스크는 텔레비전 텍스트는 단일하고 일관된 의미로 구성되기보다는 여러 상이한 의미들이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텍스트 속에 얹혀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피스크는 텔레비전 텍스트를 “선호적 의미를 위해 잠재적 의미를 억누르려고 하는 폐쇄의 힘과, 다양한 수용자들이 그들에게 적절한 의미를 교섭할 수 있게 해주는 개방의 힘 사이의 긴장 관계”<sup>2)</sup>로서 이해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텔레비전 텍스트의 다의성이 필연적인 이유는 텔레비전의 대중성이나 인기에서 찾을 수 있다. 피스크에 따르면 텔레비전이 대중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용자들에게 도달하고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하위 집단들이 텔레비전으로부터 그들 자신의 하위 문화적 정체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필요를 위해 텔레비전은 다의적이 되어야 한다.

텔레비전 텍스트의 다의성을 구성하는 텍스트적 장치들로서 피스크는 아이러니·은유·농담·모순·과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바흐친이 서양 중세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축제의 저항적인 문화적 본성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것을 피스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모순’은 텍스트의 다의성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상이다. 즉 “만약 지배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는 텍스트가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대중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 자체에 독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이해 관계를 위해 활성화할 수 있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sup>3)</sup>는 것이다.

피스크는 대중 문화 텍스트들 속에는 ‘기호학적 과다 *semiotic excess*’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호학적 과다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인 통합과는 대조된다. 피스크는 기호학적 과다의 기능을

2) Fiske, J., “Critical Response: Meaning Moment,”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6, 1988, p. 84.

3) Fiske, J., *Television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7, p. 88.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텔레비전 연구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내에서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그 기호학적 과다가 어떻게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주체적인 위치를 형성하도록 하는지, 또 어떻게 지배의 미에 저항하거나 부분적으로 교섭하는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sup>4)</sup>

피스크는 이러한 텍스트의 '다의성'과 '모순성', '기호학적 과다'의 개념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중 문화 텍스트의 의미가 '다원적'이라는 논의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텍스트의 '다원성'은 어떠한 '선호되는 의미'도 없이 다양한 의미를 텍스트가 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스크는 한 사회의 다양한 하위 문화들이 지배 문화와의 관계에 의해 제한되듯이, 텍스트의 다의적인 의미도 텍스트에 구조화되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 의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대중 문화 텍스트에는 선호되는 의미가 존재하는 반면 부분적인 의미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적인 의미가 활성화되는 과정은 텍스트 밖의 사회적 세력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주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다의성과 관련된 논의들은 피스크 이후 다양한 문화주의 계열의 학자들에 의해 대중 문화 텍스트를 포괄하는 속성으로 분석되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가들의 논지는 대중 문화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로 채워져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의미들이 상이한 수용자 집단의 해독을 끌어내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 Ⅱ. 대중 문화 텍스트의 '간파'와 '제약'

'간파'와 '제약'이라는 용어는 윌리스 Paul Willis가 노동 계급 청소년

---

4) 그래엄 터너(김연중 역), 『문화 연구 입문』, 한나래, 1995, p. 143.



년들의 반학교 문화를 민속지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간파'란 한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 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보려는 충동을 가리킨다. '제약'이란 그러한 충동의 진전과 표출을 혼란시키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월리스는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인지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계급의 문화가 '간파'와 '제약'의 모순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월리스는 영국의 노동 계급 청소년들의 반학교 문화를 민속지학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노동 계급 청소년들의 반학교 문화는 첫째, 권위에 의해 지탱되는 통상적인 가치들에 대한 거부 — 부지런함 · 복종 · 존경심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둘째, 이들 반학교 문화의 집단들은 직업 교육에 내재하는 사회적 거래의 모순을 꿰뚫어보고 있다.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직업 교육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든지, 신분의 상승 이동은 개인적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든지, 자격증은 직장을 보장한다는 등의 교육 내용과 이데올로기가 허구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계급 청소년들의 반학교 문화는 경쟁의 거부와 정신 노동을 거부하면서 육체 노동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육체 노동에 대한 긍정은 노동 현장에서의 가부장적인 권위구조에 대한 순응을 통해(여성 차별적 '사나이 문화'의 위계로 인정),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제약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과 같이 한 사회를 구성하는 비공식 집단이나, 하위 계급의 문화는 '간파'와 '제약'의 이중적인 양상을 보인다. 월리스는, '간파'는 비공식 집단의 독특한 표현 형식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한

5) 폴 월리스(김찬호 · 김영훈 역), 『교육 현장과 계급 재생산』, 민맥, 1994, p. 182.

다. 간파는 지배적인 의미의 양식-언어에서 벗어난 행위·걸모습·말투 등의 대립적인 형식들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지배적인 의미에 대립되는 표현의 양식은 항상 지배적인 사회내에서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왜곡과 제약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

이러한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에 관한 주장은 헵디지 Hebdig의 하위 문화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 『하위 문화: 스타일의 의미』에서 헵디지는 기호학을 사용하여 하위 문화적인 의상·음악·행동 양식에 의해 생성된 모호하고 모순적인 의미를 해석한다. 헵디지는 주로 젊은이의 하위 문화를 구성하는 산물들을 분석하면서 하위 문화는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의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스타일이란 상반되는 정의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장소"라고 말한다.

개별적인 하위 문화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으며 공동체 속에 통합되어 그 공동체의 가치관과 함께 지속되거나 그들을 모 문화와 대립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차이점은 하위 문화적 스타일의 의미화 과정에서 반영된다.<sup>6)</sup>

또한 헵디지는 하위 문화의 반대와 저항은 매우 피상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되는데 이것은 기호의 단계로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계급 집단이나 하위 문화 속에 존재하는 '간파'와 '제약'의 속성은 대중 문화 텍스트들 속에도 나타난다. 대중 문화 텍스트 속의 '간파'와 '제약'의 모순성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이후 대중 문화 텍스트 분석에서 종종 논의되고 있다.

김웅숙의 연구<sup>7)</sup>는 텔레비전 드라마 「종합병원」의 담론 분석에서 여성 이미지의 모순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남성의 권위에 도

6) 김연중 역, 같은 책, p. 138.

7) 김웅숙, 「텔레비전 드라마 「종합병원」의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제7호, 1995, pp. 130~61.

전하는 적극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나  
는 수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  
다는 것이다. 강승환의 연구<sup>8)</sup>에서도 이러한 대립되는 의미 구조가 파  
악된다. 강승환은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간파’의 부분에 해당하는 ‘지배적인 가부장적 가치와 전통에 대한  
거부’가 우유부단하고 약한 등장인물을 통해 제시되는 ‘제약’의 속  
성에 따라 훼손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연구에서 대중 문화 텍스트의 모순성은 주로 ‘신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층이 향유하는 대중 문화 산물에 존재한다고  
말해져왔다. 신세대 대중 문화는 ‘반동일시 *counter-identification*’라  
는 프리즘을 통해서 평가된다. ‘반동일시’란 신세대가 소비하는 대중  
문화는 기성 세대의 지배적 가치를 거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로  
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징적 차원의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즉  
흔히 신세대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신들에게 부과된 억압적  
인 사회적·문화적 제한과 지배 이념에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저항”이 부각되지만, 이러한 저항(간파)은 중국적  
으로 체제의 변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제로 귀결되는  
한계성을 지닌다는 것이다(제약).<sup>9)</sup>

### Ⅲ. 대중 문화 텍스트와 수용자

데이비드 몰리 David Morley는 『텔레비전, 수용자, 문화 연구』라는  
책에서 현재까지의 수용자 연구는 크게 ‘규범적 패러다임’ ‘기능적  
패러다임’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세 가지로 전개되어왔다고 한다.<sup>10)</sup>

8) 강승환, 「텍스트 분석의 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텍스트와 해독 주체의 다의적 성  
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1993.

9) 현실문화연구,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1994, p. 231.

10) Morley, David, *Television Audience and Culture Studies*(London: Routledge), 1992,  
pp. 47~58 참고.

규범적 패러다임의 수용자관은 수용자를 집합적 대중으로 간주한다. 효과 이론에서 주장되는 '피하 주사 모델'의 수용자는 커뮤니케이터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자를 말한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문화 산업 비판에서 수용자는 대중 문화가 제공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허위 의식과 쾌락을 소비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의미화되었다. 스크린 학파와 같은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수용자는 텍스트내의 잠재적인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다고 말해져왔다. 물리는, 특히 구조주의적 입장은 연구자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데올로기가 필연적으로 수용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주의적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위의 수용자에 대한 입장들을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연구자가 생각한 효과를 하나의 당위적 규범으로서 미리 상정해놓고, 이것이 수용자들에게도 그대로 발생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두번째 패러다임은 '기능적 패러다임'이다. 기능적 패러다임의 수용자관을 대표하는 입장은 '이용과 충족 이론'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개별 수용자들이 매스 미디어의 산물을 이용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수용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매스 미디어 산물을 선택할 뿐 아니라,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수행하는 능동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물리는 이러한 이용과 충족 이론의 수용자관은 선택의 문제를 수용자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국한시키고, 해석에서 다양한 개인적인 차이만을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세번째는 '해석적 패러다임'이다. 해석적 패러다임의 수용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관계 속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의미를 산출하는 주체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매일매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언어와 상징의 역할,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강조한다.<sup>11)</sup> 해석적 패러다임에서 수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사회 관계 속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롭게 규정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해석적 패러다임의 수용자관은 기능주의적 입장의 이용과 충족 이론과 구별된다. 해석적 패러다임의 수용자관은 수용자의 메시지 해석이나 선택에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구조들로 패턴화된다고 주장한다.

대중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과 해독에 관한 논의들은 해석학적 패러다임의 수용자관과 연결된다. 즉 대중 문화 텍스트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경제적인 구조(다양한 집단과 계급)에 따라 다른 '문화적인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주어진 메시지를 다르게 해독한다는 것이다.

또 텍스트의 다의성과 수용자 해독의 관계는 '접합'이란 개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접합'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헤게모니란 한 사회 안에서 특정의 집단이 다른 종속 집단에 대해서 사회적 권위를 행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때 사회적 권위의 행사는 물리적 강제력이나 지배적 이념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사상·이해·상식·종교의 편입을 통해 특정 집단에 대한 지배적 위치가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사회적 합의의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동의는 사회의 여러 계급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즉 헤게모니의 효과는 '접합의 원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sup>12)</sup> '접합의 원칙'이란 바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광범위한 계급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공명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양한 계급들의 담론과 요소들이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접합됨으로써 헤게모니가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접합의 원칙'을 대중 문화 텍스트와 연

11) Morely, *ibid.* p. 50.

12) 강명구, 『소비 대중 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1993, p. 37.

결시키면, 대중 문화 텍스트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수용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사회 위치에 속한 수용자 집단의 문화적 요소와 공명하게 될 때 '의미화' 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접합의 과정'에서 대중 문화 텍스트의 선호된 의미가 수용자 집단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유리될 때 의미의 전복과 다른 해독의 양상이 가능하게 된다.

### 3. 연구 문제

이상에서 논의한 대중 문화 텍스트의 다의성과 수용자들의 해독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온 '서태지와 아이들'의 제4집 앨범, 그 가운데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Comeback Home」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미 해독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와 관련지어 그들의 해독 습성을 연구한 폴 윌리스의 '간파 *penetration*'와 '제약 *limitation*'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1)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에 나타난 의미 구조는 다의적인가?
- 2) '간파'와 '제약'이라는 텍스트 의미의 모순성이 존재하는가?
- 3)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과 관련하여 집단의 해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4) 텍스트 분석의 의미 구조와 집단간의 해독은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가?

## 4.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대중 문화 텍스트 자체의 다의성과 '간파와 제약'의 속성을 밝히면서, 이러한 텍스트의 다의성이 수용자 집단의 해독과 연결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두 가지 분석 대상을 가진다. 따라서 먼저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 노래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것이 지닌 의미의 다의성과 '간파'와 '제약'의 속성을 밝히고, 다음으로 노래에 대한 수용자의 해독을 살펴보기 위해 수용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텍스트

구체적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앞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태지·양현석·이주노는 1992년 6월 '랩'<sup>13)</sup>이라는 음악 형식을 들고 나와 1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서태지 신드롬'을 일으킨다. 이에 랩 & 댄스 뮤직은 한국 대중 음악의 주요 장르로 자리잡게 된다. 국악과 랩, 헤비 메탈을 접목시킨 「하여가」 등이 수록된 2집 역시 1백만 장을 넘어섰으

---

13) 소위 '랩'은 춤을 동반해야 하는 음악을 보다 단순하고 규칙성 있게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흑인 슬럼가에서 부랑하는 청소년들의 잡설을 음악적 리듬으로 변용시킨 것으로 알려진 '랩'은 멜로디보다는 비트를 중시하면서 춤을 동반하는 아프리카 및 자메이카 토속 음악의 단순 명료한 규칙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랩음악의 등장은 음악 자체의 본래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대중의 감정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동력 중의 하나가 바로 독특한 발화 방식이다. 소위 랩핑이라는 것이 기존의 발화와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발화의 내용보다는 바로 '발화하는 방식'에 있다. 정신없이 내뱉어대는 알 수 없는 발화는 사실 씌어진 가사를 보면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이야기성을 담은 '대상화된' 발화로 들리지 않고 거의 잠음성 코드로 들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발화의 '방식'과 '지향성'의 독특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며 히피풍의 복장, 례게 퍼머 등으로 방송 출연 정지를 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1994년 8월 등장한 3집은 교육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는 「교실 이데아」와 통일 문제를 다룬 「발해를 꿈꾸며」를 들고 나와 급진적인 내용으로 주목을 모았다. 헤비 메탈과 얼터너티브 록이 주류를 이룬 3집 앨범은 '음악적 완성도는 높았으나 대중성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인 데 대해서 '시대의 반란아' '혁명적 도박' '고도의 상술'이라는 등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사탄 찬양설' '해체설' '자살설' 등의 악성 루머까지 떠돌았다.

3집의 대중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1995년 10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내놓은 4집은 열흘 만에 1백만 장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4집은 느린 힙합, 갱스터 랩<sup>14)</sup>과 북고풍의 순화된 얼터너티브 록이 결합된 스타일로 3집에 이어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정신을 담은 무거운 가사 내용이 실려 있다. 공룡의 사전 심의로 4집 수록곡 중 「시대유감」은 가사가 삭제된 채 연주곡으로 실리게 되었고, 공룡이 사후심의 과정에서 '가사 번조'를 문제삼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팬들의 '공룡 폐지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선 '표절 시비'와 'KBS의 방송 보류 결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매스컴의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하였다. 국내 일간지와 주간지는 물론 각종 평론지마다 '서태지와 아이들' 관련 기사가 실리고, 공룡의 '사전 심의 공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서태지와 아이들' 현상에 대한 논쟁이

14) 80년대 후반 미국 LA 흑인 빈민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랩이 마구 지껄이는 대사와 빠른 템포인 반면, 갱스터 랩은 조롱조의 느린 템포와 지능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비판적 가사가 특징이다. 랩이 가진 직설적이고 다소 공격한 면과는 달리,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어 더욱 과격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퍼블릭 에니미'라는 이름의 흑인 그룹에 의해 모습이 갖추어진 이 갱스터 랩은 얼터너티브 록, 테크노 음악과 함께 세계 음악을 지배하는 3대 조류로 평가된다.



펼쳐졌다. 「MBC 뉴스 데스크」가 이례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재등장을 3분이 넘게 보도했는가 하면, SBS의 「인간 탐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사례를 소개하였고, 생방송 「찾라인! 70분의 선택」에서는 공룡의 고발 조처에 대한 즉석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KBS에서도 생방송 「아침마당」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현상을 놓고 부모와 청소년·교육계·문화계 등의 전문가를 모아 토론을 벌이는 등 '서태지와 아이들 사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대중 음악은 그 음악적 형식의 독특함 뿐 아니라 가사의 파격성에 의해서도 논란이 되어왔다. 대중 가요의 가사들은 근본적으로 동시대의 규범적인 문화를 구성하는 관습화된 관념들에 의존하게 된다. '사랑 타령'이나 '이별 타령'의 상투적인 테마와 분위기의 노래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이유의 한 측면이 여기에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의 초기 가사들도 '사랑'과 '이별'의 테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데뷔 앨범에 수록된 「난 알아요」를 비롯,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이 밤이 깊어가지만」 등과 두번째 앨범의 「하여가」 「너에게」 등의 대부분의 노래들이 그 음악적 형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다루는 사랑의 성격은 이전의 스테레오 타입화된 사랑 노래들의 그것과는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담지하고 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 나타나는 사랑은 남녀간의 연애 감정이기 보다는 친구간의 우정이나 연대 의식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표현에 있어서도 독특한 문체 사용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명시적 주제가 사랑이 아닌 것으로는 「환상 속의 그대」와 「죽음의 늪」 「수시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환상적인 일상성에서의 탈피와 새롭게 거듭남에 대한 권고, 자유로움에 대한 예찬과 동경,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능력의 발휘와 자신감의 표현 등이 어우러지면서, 자신을 억압하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로부터의 일탈과 해방감이 내면화되어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3집 앨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 비판적인 가사를 다루기 시작한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청소년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발해를 꿈꾸며」와 우리나라의 모순된 교육 현실에 비판을 가하는 「교실 이데아」 같은 것이 그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가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4집의 「Comeback Home」이 그뒤를 잇게 된다. 특히 공룡 심의에서 가사가 반려된 「시대유감」은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보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압박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를 묘사한 것이라고 한다. 힙합 계열의 빠른 템포인 「1996년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역시 돈의 노예가 되어 전쟁·마약·살인·테러를 일삼는 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담고 있다.

이처럼 ‘서태지와 아이들’은 현재 대중 문화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들의 주 대상이 청소년들이기에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심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다양한 대중 문화 텍스트들 중에서 최근작인 4집의 「Comeback Home」의 가사 텍스트를 주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수용자 집단

수용자 집단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주요 소비층이 되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은 대개 만 12(13)세에서 19(20)세 사이의 중·고·대학교 1, 2학년 정도가 대상이 된다.<sup>15)</sup> 본 연구에서는

15) 이해정,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 가치 의식에 관한 연구」, 경북대 일반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p. 13.

청소년 집단을 구별되는 4가지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해독의 공통성과 상이한 해독 방식을 연구하였다. 그들 집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 집단

집 단	속 성
A 집단	대구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녀 학생들 (1학년, 2학년 10명)
B 집단	대구의 야간 여상을 다니는 여학생들 (2학년 6명)
C 집단	대구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비판적 성향의 독서 서클에 가입해 있는 여학생들 (1학년, 2학년 5명)
D 집단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 여학생들 (1학년 3명)

이외에 PC통신을 통해 수집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PC통신은 통신 발송자의 정확한 인적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해독을 유형화시키기보다는 하나의 양상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 Ⅱ. 분석 방법

### 1) 텍스트 분석 방법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은 리듬과 빠른 비트가 중시되는 랩 계열의 음악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리듬과 곡조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주로 노래 가사 텍스트에 치중하였다. 먼저 가사는 '모티프' 단위로 분절하여 각각의 내용과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토마체브스키에 의하면 '모티프'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이야기의 단위"로 우리말로로는 '동기'로 해석될 수 있다. 노래 가사는 이야기 구조와는 달라서 각각의 모티프 단위들의 내용과 의미가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보다 분명히 도출하기 위해서 모티프 단위로 분절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합체 분석과 계열체 분석이 가해지게 된다. 텍스트에 대한 통합체 분석은 텍스트를 어떤 종류의 이야기체를 구성하는 사건들의 연쇄로 보고, 사건들의 결과로서 텍스트를 분석한다. 한편 계열체 분석은 텍스트 속에 묻혀서 의미를 발생시키는 숨겨진 이항 대립의 유형을 밝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의미는 확립된 관계에 기반하고 있고 언어의 의미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의미를 생성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는 이항 대립들의 숨겨진 패턴을 찾는 것이 계열체 분석<sup>16)</sup>이다. 통합체 분석은 그 텍스트의 명시적 의미를 보여주고, 계열체 분석은 함축적 의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세번째로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로만 야콥슨의 여섯 가지 언어 기능 논의를 참조하였다. 특별히 각 노래의 언어 기능을 살펴본 이유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노래를 듣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기능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야콥슨은 『시학의 문제들』에서 언어 전달의 여섯 가지 요소와 관련되는 언어 기능을 밝혔다. 언어 전달에 필요한 여섯 가지 요소는<sup>18)</sup> 발

16) 계열체 분석에서 지배소를 중심으로 대립항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지배소'는 한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초점을 제공하거나, 작품의 통일적인 의미 파악의 단서가 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조주관 편, 『러시아 시 강의』, 열린책들, 1993, p. 76.

17) 백선기,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오은영,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1994, p. 38.

신자, 수신자, 메시지, 접촉, 관련 상황, 암호 체계이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요소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언어 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언어의 '지시적인 기능'은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적·외시적 기능이다. 두번째로 '표현적(정서적) 기능'은 발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진실된 감정이나 거짓된 감정' 등의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지향한다. 언어에 있어서 순수한 감정적 표출은 감탄사에 의해 구성된다. 분노 등의 정서적 정보가 지시물에 덧붙여지는 것이 언어의 '표현적 기능'의 역할이다. 세번째로 '능동적 기능'이 있다. '능동적 기능'은 수신자를 향한 것이다. 이 기능은 가장 순수한 표현의 명령이나 호격이다. 네번째로 '사립의 기능'이 있다. 의사 소통을 지속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아' '이런' 등과 같이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습득하게 되는 언어의 기능이다. 다섯번째로 '메타 언어

18) 로만 야콥슨, 「언어학과 시학」, 조주관 편, 『러시아 현대 비평 이론』, 민음사, 1993, p. 225.

어적 기능'이 있다. 대상 언어는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는 반면, 메타 언어는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언어에 대한 문법적 설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시적인 기능'을 들 수 있다. 언어의 '시적인 기능'은 그 자체로서 메시지를 목표표로 한다. '시적 기능'은 기호들이 지시하는 대상과는 분리된 고유한 목적을 가진 기호들의 측면이다.

## 2) 수용자 해독 분석 방법

수용자 집단 해독 분석 방법으로는 민속지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학적 방법론의 의미와 실제 연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속지학 *ethnography*은 인류학에서 발전된 질적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민속지학적 방법은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두 가지 조류에서 영향을 받았다.<sup>19)</sup> 즉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할 때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공유하고 내면화하며, 사회 현상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통적 인류학에서 민속지학의 주 대상은 원주민 사회였다. 주된 접근 방법과 목적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원주민들이 그들 사회의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참여 관찰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었다.<sup>20)</sup>

이러한 자연적 조사, 참여 관찰, 장기적 조사의 접근 방식은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1970년대 이후 버밍햄 현대 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문화 연구 학파에 의해 미디어 수용자의 해독 연구와 하위 문화 연구의 방법론으로 차용되었다.

민속지학적 방법은 방법론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19) 김정동·이은숙, 『사회 조사 연구 방법』, 박영사, 서울, 1989, p. 48.

20) 최준호, 「수용자 중심의 텔레비전 비평 방법론 모색」,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p. 29.

다.<sup>21)</sup> 즉, 첫째, 사람들의 행동은 조사자에 의해 만들어진 실험적인 상황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연구된다. 둘째, 자료의 수집은 관찰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자료 수집은 미리 세워진 구체화된 연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구조화된'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한 미리 주어진 범주는 없다. 이것은 조사가 비체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료가 원래의 형태 그대로 수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연구 대상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집단이나 사회 환경이 된다. 다섯째, 자료의 분석은 인간의 언어적 기술과 설명, 관찰한 행동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민속지학적 방법은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가정과 세밀한 연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속지학은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관찰하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사회 현상을 그들의 언어로 의미화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선험적인 전제는 주어지지 않고 그들의 언어들은 자료 수집이 끝난 차후에 연구자에 의해 해석된다.

이와 같은 의미와 분석 방법을 가진 민속지학적 방법은 폴 윌리스의 『노동 배우기』를 통해 사회 집단과 하위 문화의 연구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윌리스는 “노동 계급 자녀들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다시 노동 계급으로 편입되는가”의 문제를 청소년들의 반학교 문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윌리스의 연구는 하나의 중심 사례 연구와 5개의 비교 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중심 사례 연구는 영국의 헤머타운의 공립실업중등학교에 다니는 12명의 공부 못하는 노동 계급 자녀 그룹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 대상 그룹에 대한 조사는 수업, 방과 후, 여가 활동에

21) Martyn Hammersley, *Reading Ethnographic Research: A Critical Guid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0, pp. 1~2.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참여 관찰하는 방법과 그의 정기적인 그룹 토론과 비공식적인 면담 기간을 활용했고, 학생들의 일기도 참고 자료로 삼았다. 연구자는 교사가 아닌 청강생의 자격으로 연구 대상 그룹이 수강하는 모든 과목의 수업에 함께했다.

윌리스는 주요 그룹의 12명 모두와 비교 그룹 중 3명을 졸업 후 일 자리를 갖게 될 때까지 계속 관계를 가지며 연구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들의 실제적인 직장에서의 작업을 관찰하고, 직장의 감독·주임·노조위원과도 면담하였다.

이와 같은 윌리스의 연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을 그들의 일상 속에서 관찰하고, 장기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민속지학적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수용자 연구에서 민속지학적 방법은 윌리스의 연구에 비해서 축소되었다. 수용자 연구에서 민속지학적 방법을 도입한 연구는 데이비드 몰리의 『전국 텔레비전 *Nationwide*』 수용자 연구이다. 몰리는 먼저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인 네이션와이드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대략적으로 선호되는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분석한 두 가지 프로그램의 녹화물을 네 집단에게 보여준 다음 개별적인 인터뷰와 집단 토론을 실시하였다. 나누어진 네 집단은 '경영자'(은행 경영자들: 남자, 24~52세, 백인, 중류 계급) '학생들'(대학 교양 과목 수강생들: 백인, 남녀, 19~24세, 중류 계급, 교사 양성 과정에 있는 단과대학 학생들: 백인, 여성, 19~46세, 중류 계급, 성인 평생 교육 과정의 학생들: 여성, 흑인, 18~25세, 노동 계급), '직업 교육생들'(백인, 남자, 18~24세, 노동 계급), '노동조합원들'(남자, 백인, 35~45세, 노동 계급)이다.<sup>22)</sup>

이와 같이 집단을 세분화한 이유는 한 집단을 구성하는 여러 성향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능력'을 좌우하게 되고, 이것

22) Morley, 앞의 책, pp. 104~18 참고.



이 프로그램의 해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명진(1992)은 「TV 드라마가 생산하는 즐거움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민속지학적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박명진은 우선 「사랑이 뭐길래」라는 주말연속극의 담론을 분석한 다음, 여성 수용자들이 '즐거움'을 생산하는 의미 유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sup>23)</sup> 박명진은 앙Ang이 로맨스 소설에 대한 여성 독자들의 즐거움의 근원을 찾기 위해 편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것에 착안하여, 「사랑이 뭐길래」 여성 시청자들의 편지를 공모하여 의미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매스 미디어와 수용자 연구에서 사용된 민속지학적 방법은 소규모의 미리 구별된 수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인터뷰와 집단 토론, 편지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또 물리는 「가족 텔레비전 *Family Television*」에서 민속지학적 방법의 중심이 되는 일상 생활 *context*의 작용을 고려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일상 생활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행위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수용자 해독 연구는 민속지학적 방법을 참고로 하여, 수용자에 대한 비공식적 인터뷰와 집단 토론, 자기 보고서, PC통신의 의견장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들을 세분화하여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A집단'은 대구 지역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남녀 학생들로서 학교 생활에서 서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들에 가입해 있지 않은 학생들이었고, 'B집단'은 대구 지역 야간 여상에 다니는 2학년 여학생들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을 싫어하는 학생들이었다. 'C집단'은 대구 지역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여학생들로서 비판적 성향의 독서 서클에 가입되어 있었고, 'D집단'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 여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각 집단을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

23) 박명진, 「TV 드라마가 생산하는 '즐거움'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1992.

〈그림 2〉 수용자 집단의 속성 및 호감도

집 단	성 별	학 교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호감도 비교	비 고
A	남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좋고·싫음이 불분명함	
B	여	야간 여상	싫음	
C	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좋고·싫음이 불분명함	독서 서클 가입
D	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좋음	팬클럽 회원

## 5. 결과 및 논의

### I. 텍스트 분석

#### 1) 통합체 분석

「Comeback Home」 노래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가사에 대한 통합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텍스트 의미의 다의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다의적인 의미는 후렴구로서 반복되는 모티프 A로 인해 전체적으로 완결된 의미 구조가 깨어진다는 데서 비롯된다(〈그림 3〉 참조).

〈그림 3〉 「Comeback Home」의 모티프 분석

반복되는 모티프 A 현재
<p>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 ① 미래에 대한 회의</p> <p>난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가 —</p>
모티프 1 도입 — 과거
<p>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 ① 절망적인 삶</p> <p>내 가슴속은 갑갑해졌어 — ② 답답함</p> <p>내 삶을 막은 것은 나의 내일에 대한 두려움 —</p> <p style="text-align: right;">③ 답답함과 절망의 원인: 불투명한 미래</p> <p>반복됐던 기나긴 날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본 후 —</p> <p style="text-align: right;">④ 자신의 삶의 조건을 자각</p> <p>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내일조차 없었어 — ⑤ 자신의 존재와 미래 부정</p> <p>내겐 점점 더 크게 더해갔던 이 사회를 탓했던 분노가 마침내 증오가 됐어 — ⑥ 절망의 심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p> <p>진실들은 사라졌어 허 끝에서 — ⑦ 절망 심화의 원인: 진실의 부재</p>
<p>내용 — 반복되는 일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의미를 잃어갔던 나의 과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진실이 사라진 사회를 증오</p>
반복되는 모티프 B
<p>You must comeback home</p> <p>떠나간 마음보다 따뜻한 You must comeback home</p> <p>거칠은 인생 속에 나를 완성하겠어</p>
모티프 2 중간 — 과거와 현실의 혼재

다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고 또다시 부모의 제압은 시작됐지 —

⑧ 절망과 가출의 원인: 부모의 제압

내겐 사랑이 전혀 없는 것 내 힘겨운 눈물이 말라버렸지 —

⑨ 가출의 원인: 사랑의 부재

무모한 거품은 날리고 흙 — 주위를 둘러봐 널 기다리고 있어 —

⑩ 가출에 대한 후회

그래 이젠 그만 됐어 나는 하늘을 날고 싶었어 —

⑪ 자신의 도피 원인의 총체적 해석 제공: 자유 갈망

아직 어린 젊기에 팬잡은 미래가 있기에 —

⑫ 미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합의: 미래는 있다는 자각의 원인 — 젊다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은 닦고 Comeback home —

⑬ 위로와 집으로 돌아가길 권유

#### 반복되는 모티프 B

터질 것 같은 심장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있어 날 사랑했다는 것을

— ⑭ 자기애를

깨달음, 절망의 극복

내용 — 사랑이 없는 부모의 제압 속에서 가출했으나 가출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인식, 자기애로 절망 극복

#### 반복되는 모티프 B 결말 — 미래를 기약하는 현재

떠나는 마음보다는 따뜻한, 거칠은 인생 속에 나를 완성하겠어 —

⑮ 미래에 대한 의지

내용 — 자신을 완성할 미래에 대한 의지 표현

반복되는 모티프 A — 현재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난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걸까	⑩ 미래에 대한 회의
내용 — 여전히 현재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 인지를 알 수 없음.	

### (1) 의미 구조 1

‘반복되는 모티프 A’를 제외했을 때 전체적인 곡의 내용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르는 시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또 과거의 절망으로 인한 가출과 절망을 극복한 현재, 집으로 돌아감을 결심하는 미래의 인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절망 → 가출 → 절망 극복 → 희망찬 미래’의 완결된 의미 구조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모티프를 분석해보면, ‘모티프 1’에서 절망은 현실의 답답함과 미래의 불투명성, 진실의 부재, 사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원인이 되고, ‘모티프 2’에서 ‘부모의 제압’과 ‘사랑의 부재’로 구체화되어 도피의 원인이 된다.

‘모티프 2’에서는 절망의 원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제시되는데, 이는 가출 경험에 대한 후회(“무모한 거품은 날리고”), 기다리는 존재의 인식, 자신의 도피 원인에 관한 총체적 깨달음(“하늘을 날고 싶었어”), 미래가 존재하고 자기에를 느끼게 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날 사랑했다는 것을”).

이러한 의미 구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극적 반전이 발생하는 ⑨행에서 ⑩행이다. 어떤 개연성이 있는 중간 단계의 설명 없이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적인 상황으로 반전된다. 중간 단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가사는 “무모한 거품이 날리고”의 부분인데, 가출의 결과가 무모한 것이었고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극적인 반전은

⑨행에서 “사랑이 전혀 없는” 현실이 “널 기다리는” 현실로 급박하게 바뀌고, “없는” 미래가 “괜찮은 미래”로 회복되고, “젊음”이 새로운 희망으로 제공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남은 해결책은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로 표현된다.

## (2) 의미 구조 2

‘반복되는 모티프 A’를 넣고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을 때 앞에서와 같은 완결된 의미 파악은 어려워진다.

의미 파악의 어려움은 ‘수미 상응 구조’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조는 절망의 극복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의지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곡의 도입부에 느리게 나타나는 “난 지금 무엇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 “난 지금 어디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걸까”의 부분은 욕망하는 대상이 부재하는 현재와 회의적인 미래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맨 마지막에서 다시 나타나게 되면서(수미 상응) 앞행의 “거칠은 인생 속에 나를 완성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수미 상응 구조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절망의 끊임 없는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통합체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 가사 텍스트는 두 가지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다의적인 의미가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반복되는 모티프’의 단절과 연계에 의해 의미가 전혀 다르게 표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2) 계열체 분석

이 곡의 내용에서 의미의 중심인 ‘지배소’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낳는 ‘대립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중심이 되는 ‘지배소’들은 나(너), 삶(인생), 미래, 사회와 부모들이다.

〈그림 4〉 지배소와 대립항들

지배소	부정적 의미의 기호	긍정적 의미의 기호
나 (넌,우리)	<p>1)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감잡해졌어  분노·증오  힘겨운 눈물  차가운 눈물  두려움  터질 것 같은 내 심장  미치게</p> <p>2)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  없었어, 버려진</p>	<p>젊기에  완성  (욕망하는 나)</p> <p>기다리고 있어(?)</p>
사회·부모	<p>제압  진실들은 사라졌어</p>	
삶(인생)	<p>끝  반복되는 기나긴 날  막힌  거칠은</p>	
미래	(미래도) 없었어	괜찮은 미래

### (1) '나'의 의미

나라는 의미로 널 우리가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세 단어 모두를 '나'라는 지배소로 볼 수 있다. '나'의 의미를 낳는 단어들은 심리 상태와 존재 상태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나의 심리 상태에 대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기호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증오, 갑갑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존재 상태에 대한 부정적 의미의 기호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함(없었어)과 사랑의 결핍(버려짐)으로 나타난다.

나와 관련된 긍정적 의미의 단어는 젊다는 것이고 내가 지향하는 나는 완성된 나이다(나를 완성하겠어).

'나'의 부정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데 비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의미는 단순히 젊음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된다.

### (2) '사회'와 '부모'의 의미

사회와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의미는 제압과 진실의 부재로 표현된다. 제압과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는 용서를 표현하는 널 기다리고 있어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흠—주위를 둘러봐, 널 기다리고 있어라는 문장에서 나의 억압적 환경의 일부였던 부모와 사회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장에서 기다리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미는 불분명하다.

### (3) 삶의 의미

삶이나 인생에 관한 부정적 의미작용의 단어들은 끝 반복되는 기나긴 날 막힌 거칠은의 단어들을 통해 절망적이고 닫힌 현실, 변화 없는 일상,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한다.



#### (4) 미래의 의미

마지막으로 미래는 없었어라는 표현을 통해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괜찮은**이라는 단어와 함께 긍정적인 의미 역시 나타난다. 그러나 **괜찮은**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시되지 않는다.

계열체 분석을 종합해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상황은 부정적 단어들과 함께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전체적인 곡의 분위기를 어둡게 한다. 그러나 “You must comeback home(너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해)”이라는 반복되는 권유를 믿게 하는 현실의 긍정성과 변화가 가능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단어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나를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희망은 나의 육체적 젊음과 **괜찮은** 미래, 여전히 부재하는 미래의 목표(무엇, 어디) 속에서 모호하게만 제시되고 있다.

#### 3) 언어 기능 분석

「Comeback Home」에서 화자(송신자, 말하는 자)는 노래 내용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화자이다. 이 화자는 ①행에서 ⑨행까지의 독백 부분의 화자가 된다. 편의상 이 화자를 ‘텍스트내의 화자’로 부르기로 한다. 또 하나의 화자는 텍스트 내용과 관계없는 노래하는 목소리이다. 이는 ⑩행에서 “주위를 둘러봐 널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는 ‘노래하는 화자’이다.

청자(수신자, 화자의 대상)는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⑩행의 ‘널’에 해당하는 청자이다. 여기서 ①행에서 ⑨행까지의 독백의 화자를 청자로 본다면 ‘텍스트내의 청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자는 넓게 보아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모든 청소년들이다. 노래의 내용과 연결해서는 집을 떠나고 싶어하거나 이미 집에서 가출한 구체적인 청소년들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텍스트 밖의 청자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화자—청자의 구조를 살펴보



다. 텍스트내 화자의 독백은 분노, 절망, 자기의 소망을 표현하는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노래하는 화자는 텍스트내의 청자와 텍스트 밖의 청자들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능동적 언어 기능'을 행사한다.

#### 4) 텍스트에 나타난 다의적 의미 구조

이와 같은 분석 결과, 「Comeback Home」의 의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태지와 아이들'의 텍스트들은 다의적인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서태지와 아이들'의 텍스트는 비일관적이고 완결되지 않는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 「Comeback Home」은 가사와 뮤직 비디오의 수미 상응 구조로 인해 결론이 부재하는 의미의 순환을 보여 준다. 결론의 부재는 다의적인 해석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급격한 반전과 반복되는 후렴구의 빈번한 삽입은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전체적인 의미를 분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미의 이중성(양가성)이 존재한다. 이중적인 의미는 텍스트내의 한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Comeback Home」에서 미래는 '없는' 동시에 '괜찮은 것'이며, 부모와 가정은 나의 '제압'의 장소이자 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이 한 텍스트내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개연적인 변화의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Comeback Home」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할 뿐이다.

둘째, 이러한 외면적 의미의 다의성 외에 텍스트의 현실 비판 기능과 관련하여 '간파'의 속성이 존재한다. 가출은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진실이 없는 제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리고 '간파'는 발화의 기능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대중 가요들과는 달리, 노래를 듣는 대상

의 행동을 촉구하는 '능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능동적 언어 기능은 사랑의 아픔을 토로하는 많은 대중 가요들과 달리 현실에 대해 던져지는 적극적인 메시지이다. 이러한 '간파'는 주어의 사용을 통한 집단적 문제 해결의 방식 속에서도 존재한다. 이것은 '나' '너' '우리'의 주어의 혼합된 사용으로 인한 효과이다. 원래 대중 가요는 주로 일인칭 시점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어휘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서도 '나'의 주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서 '나'는 단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되었다가 다시 '우리'로 이어진다. '나'가 '너'로 변이되면서 문제를 가진 대상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 듯한 관계가 설정되고, 이것이 다시 '우리'를 통해 문제의 극복으로 연결되면서 정체성 획득을 통한 '치유적'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위와 같은 '간파'적인 메시지는 많은 부분, '계약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계약'의 속성은 변화의 대상을 '현실'이 아닌 나의 내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가 변화를 위한 '능동적 언어 기능'이 두드러지지만 이러한 변화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귀착된다. 변화의 지향점이 나 자신으로 향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식은 언제나 추상적으로만 제시된다(젊음·솔직성·아름답게·새롭게·사랑과 진실) 또 다른 계약의 속성은 다의적인 의미 구조로 인해 발생한다. 완결된 의미 파악의 불가능성과, 반복되는 후렴구로 인한 의미의 분절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참여한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히 빠른 리듬과 춤으로만 소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II. 수용자 집단의 해독

수용자 집단의 해독 양상은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

히 텍스트 분석에서 드러난 다의적인 의미구조와 '간파'와 '계약'의 속성에 대하여 수용자의 상이한 해독이 존재하였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meback Home」 노래는 다수의 집단 성원들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노래로 해석하였다. 특히 이들은 언론에서 발표된 가출한 청소년들이 「Comeback Home」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례를 꼭 언급하였다. 즉 「Comeback Home」의 의미 해석에서는 텍스트 외의 해석 변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상이한 해독 유형이 존재하였다.

“Comeback home 그거 무슨 노랜데?”

“몰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노래지 뭐, 실제로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갔다며?”

“그거 진짜가?”

“밖에 나가면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뭐.” (B 집단 토론중)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함, 부모의 제압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지만, 결국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 (A집단 2학년 남학생)

“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따뜻한 보금자리인 집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A집단 일학년 여학생)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젊음이 있으니깐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다.” (A집단 일학년 여학생)

그러나 다른 해독의 양상도 존재하였다. 이들은 '돌아옴'의 의미가

주는 모호한 성격과, 돌아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노래내의 모순을 느끼고 있었다.

“근데 돌아오면 뭐하는데?”

“니를 완성해라 안 하나?”

“필로?”

“널 기다리겠어, 그 부분만 들어온다.”

“누가 기다리는데, 부모?”

“서태지와 아이들.” (웃음)

“그러면 갈 필요 없네 뭐.” (A집단 토론중)

집에 돌아온다고 해도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집, 나올 땐 자신있게 나왔는데 들어가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부모들은 안 바뀐다. 부모들은 대화로 안 통하면 때리기도 하고.” (A집단 일학년 여학생)

또 다른 해독은 노래 속에 있는 현실 순응적인 면을 느끼는 경우였다.

“내 생각은 이 노래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자기 속에 가두고 부모 말씀 잘 듣고, 딴 사람들처럼 착한 애로 살아야 한다는 것 같아.” (C집단 이학년 여학생)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A집단의 한 남학생은 또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뭐, 그냥 기성 세대에 대한 비판, 뭐 그런 거지요. 가출한 청소년들은 별 잘못이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A집단 일학년 남학생)

특히 ‘C집단’의 경우는 「Comeback Home」 노래의 모순성과 현실 순응적인 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였다.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아직 어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들렸거든요. 이 부분만 딱 들었을 때는 집 나가라는 애긴 줄 알았어요. 너는 젊으니까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면 미래가 괜찮을 거라는, 근데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참고 살면 괜찮은 미래가 올 거라는 그런 내용이라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별것 아닌 노래죠.” (C집단 일학년 여학생)

“이 노래는 집에서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보통 사람처럼 살고, 탄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넌 완성됐어’ 할 때 그때 사회에 나가면, 지금 니가 가출해서 나간 사회보다 좀더 나은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서 참아라 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C집단 이학년 여학생)

“컴백 홈은 3집의 교실 이데아하고 너무 안 맞아요. 뛰쳐나간 애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제도에 순응하고 살면 좀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말인데, 그건 3집이랑 안 맞아요.” (C집단 이학년 여학생)

“가출의 원인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데, 저건 보니까 가출을 너무 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PD 수첩」 같은 것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도 부자고 돈 많은 애가 캥패 집단에 괴로움 당하고, 집에서는 엄마가 옥박지르고, 친구도 별로 없고, 공부 잘하니까 애들이 질투하고 그러니까 괴롭고, 그래서 가출한다는 애기 같아요. 내 친구 중에 집 나간 지 이틀 되는 애도 있지만…… 가출은 가정 불화도 있겠지만 공

부는 죽어라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노는 데 애착이 있는 애도 있고, 돈이 너무 벌고 싶어서 가출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C집단 이학년 여학생)

이들은 「Comeback Home」의 의미 구조가 현실에서 참고 살라는 보수적인 목소리와 다를 것이 없으며, 너무 진부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집단'은 이와는 달리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개혁성과 참신성을 옹호하면서, 그들이 우리 대중 음악계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역설한다.

“난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런 그들의 음악적 견해를 보면 다분히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의 대중 가수와는 큰 격차를 두지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 가요 가사는 대부분 사랑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요. 물론 사랑,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과연 대중 가요라고 해서 사랑만을 메시지로 담아야 하는가요? 약에도 쓴 약이 있고 단 약이 있는데 그리고 아픔이 큰 만큼 그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도 크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요계에서 서태지가 개혁하고 있는 혁명일는지도 모릅니다.” (D집단 일학년 여학생)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의 음악이 히트하면 상업적으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서 획일적이고 감각적이고 시각적으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음악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서태지는 다릅니다. 글썄요. 우리의 삶이 사랑만 있고 낙천적인 낙원이 아닌 이상 비판적이고 독설적이고 신랄한 사회 비판적인 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음악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즐기고 소비하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고 비판할 수 있는 삶에 다가선 음악, 태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에게선 대중 가요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열정과 능력을 발견합니다.” (D집단 일학년 여학생)

“서태지는 단순한 대중 가수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주류 질서의 전복자라고 할 수 있어요.” (D집단 일학년 여학생)

그러면서 「Comeback Home」이 수록되어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에 대한 어른들의 제약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4집을 단지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다는 식으로 공론의 어른들은 판매 금지를 시킨답니다.” (D집단 일학년 여학생)

그리고 나서 끝으로 「Comeback Home」이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는 뜻으로 만들어 졌음에 동의한다.

“그전 내 생각에 태지들이 가출 청소년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태지들은 우리 맘을 알아.” (D집단 일학년 여학생)

이들 청소년 집단들의 해독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림 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로 구성된 ‘A 집단’의 경우는 새로움과 신기함만을 선호하거나, 사회 비판적인 면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이었지만, 너무 비판적이고 자신의 학교 생활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야간 여상을 다니는 여학생들인 ‘B집단’은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 별로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했고 전체적으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림 6〉 수용자 집단의 의미 해독

A집단	B집단	C집단	D집단
새로움과 신기함	의미 이해 부족	한계점 인식	서태지에 대한 의미
적극적 사회 비판	과격성 비판	부분적인 현실 비판	영웅
메시지 공감	반항적	메시지의 비구	질서 전복자
너무 비관적	공감 부족	체성·상품성	청소년들의
옷차림 비판	옷차림 비판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Come back Home
—캠페인성	—캠페인성	—모순성	—비판성
현실 순응성	현실 순응성	현실 순응성	저항성
비판성			

이들은 내용도 이해할 수 없고 정서적인 공감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옷차림에 대한 거부감만을 뚜렷이 나타내었다. 이들은 졸업 후의 취업을 위해 컴퓨터 등의 학원을 다니는 것이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 인문계 학교와는 달리 보충 수업이나 자율 학습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나 대학에 대한 거부감의 정서는 이들의 실제 생활과 연결되지 않았다.

‘C집단’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텍스트가 가진 ‘간파’와 ‘제약’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현실 비판적인 ‘간파’의 면에서 부분적인 지지를 하였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하는 비판과, 현실 순응적인 속성의 ‘제약’도 비판하였다. ‘C집단’의 경우는 학교 문화 외에도 서클 활동을 통해 다른 대안적 문화에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회를 비판하는 다른 방향의 노래(민중 가요나 전교조 등과 관련된)들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해독은 몰입이나 완전한 부정이 아닌 ‘거리’를 두고 비판하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C집

단'의 풍부한 의미 파악은 그들이 섭취하는 다양한 문화적 능력에 따른 것이었다.

'D집단'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클럽으로서 열광적인 팬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 느끼는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은 단순한 대중 가수가 아니라, 주류의 사회 질서를 전복하고 기성 세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서태지와 아이들'과의 강한 감정적 결속을 보여주었다. '서태지와 아이들'과의 감정적 결속은 기성에 대한 편 가르기 식 강한 거부 의정서로 나타나고 있었다.

## 6. 결 론

이상과 같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Comeback Home(집으로 돌아가라)」이라는 노래를 중심으로, 그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의미의 다의성과 그것에 대한 수용자의 해독의 다양성을 살펴보았다.

「Comeback Home」에 나타난 의미 구조는 실제로 다의적인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기본 가사 텍스트와 반복되는 후렴으로 불려지는 후렴구의 연계 관계에 따라 그 의미는 다양하게 구분된다. 후렴구가 없는 기본 텍스트에 대한 의미 구조는 '절망 → 가출 → 절망 극복 → 희망찬 미래 → 집으로 돌아옴'이라는 선명하고 완결된 구조를 띠게 되어, 일정한 의미인 '집으로 돌아가라'는 전형적인 캠페인성 노래가 된다.

그러나 후렴구를 연계하여 의미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수미 상응 구조가 되어, '절망 → 가출 → 극복 → 희망찬 미래 → 집으로 돌아옴 → 절망'의 구조로 바뀌어, 집으로 돌아가도 역시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은 남게 되어, 의미는 모호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모호성(다의성)은 노래의 중심 주체인 '나'와 '너'가 일관되게 구체화되지 않고, '나' '너' '우리'가 섞여서 혼재되어

나타남으로 인해, 더욱더 다의적이게 된다. 주체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인지, 객체에게, 즉 노래를 듣는 청소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체와 객체가 혼재된 우리 모두가 주 대상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이 가사 텍스트의 근간을 이루는 '부정'과 '긍정'의 이항적 대립도, 가사 텍스트 자체로는 명료하게 드러나지만, 이것의 연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모호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정'과 '긍정'의 대립 구조로 인한 선명한 의미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이란 분석틀로 살펴보게 되면, 텍스트가 지닌 복합성으로 인하여 '간파'와 '제약'이란 개념으로 명료하게 분석하기가 어렵다. 즉 후렴구를 빼어버린 상태에서 가사의 본 텍스트만을 근간으로 할 때는, '간파'와 '제약'이라는 윌리스의 개념이 적절하게 적용되게 된다.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일종의 억압이나 강압에 대해 저항하려고 하고, 따라서 기존의 틀을 상징하는 사회나 가정에서 뛰쳐나가려 하는 '간파'적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간파적 상황도 완전하지는 못하여, 다시금 기존의 사회틀에 맞추어 사는 것이 낫다는 논리하에 다시 사회로 들어오게 되는 '제약'의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폴 윌리스의 개념은 '간파' — '제약' — '간파'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실제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지 않는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인지, 사회내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존의 사회적 틀에 대해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나' '너' '우리'가 혼재하는 기호로 인하여,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집을 가출한 청소년'과 '집에 돌아온 청소년'을 대비할 수 있는지, 이들을 '청소년 전체 집단'으로 수렴해야 되는 것인지 역시 분명하지가 않다. 만약 '집을 가출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니면 '집에 돌아온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체 청소년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집을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래라면, 폴 윌리스의 근본 개념인 '간파'와 '제약'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전체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러한 분석들의 적용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다의적 의미를 지닌 가사 텍스트에 대한 수용자들의 해독 역시 다양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해독의 다양성은 그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편향적인 평가와 좋고·싫음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 가사가 지닌 의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집단은 「Comeback Home」의 의미 구조를 보다 다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다양하게 음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싫어하는 집단은 「Comeback Home」이 단순한 캠페인성 노래에 지나지 않으며, 그 가사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도 보잘것없다고 간주한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은 기존의 사회적 틀 안에서 안주하는 일부 기성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단지 자신의 외양이나 노래의 리듬을 변조하여 다른 것처럼 위장하나, 그들이 노래하는 가사는 사회적 틀 안에서 안주하고 지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반 대중 가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즉,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입장이나 평가 및 감정적 편향이 그들의 의미 해독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omeback Home」이라는 노래는 그 가사 텍스트가 지닌 구조의 복합성에 의해 의미가 다의적으로 표출되며, 그 텍스트를 해독하는 수용자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입장과 편향성에 따라 다르게 해독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사회에 표출되는 하나의 대중 문화 텍스트가 송신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의미를 지니면서 전파되고, 그것이 사회내의 일반적

해독으로 설정된다고 하는 전통적 전기 구조주의의 기본적 인식에 반하는 것이며, 또한 해독에 있어서도 수용자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나 입장에 따라 동일한 텍스트를 다르게 해독하게 된다는 후기 구조주의적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대중 문화 텍스트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중 문화 텍스트가 지닌 다의성과 그것에 대한 수용자 해독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명구, 『소비 대중 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1993.
- 강승환, 「텍스트 분석의 기호학적 방법론 연구: 텍스트와 해독 주체의 다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경동·이은죽, 『사회 조사 연구 방법』, 박영사, 1989.
- 크래엄 터너(김연중 역), 『문화 연구 입문』, 한나래, 1995.
- 김성희, 『한국 회곡과 기호학』, 집문당, 1993.
- 김응숙, 「텔레비전 드라마 「종합병원」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제7호, 1995. pp. 130~61.
- 마틴 에슬러(김문환·김윤철 역), 『극마당: 기호로 본 극』, 현대미학사, 1993.
- 박명진, 「텔레비전 드라마가 생산하는 '즐거움'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1992.
- , 「즐거움, 저항, 이데올로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13권 2호, 1991.
- 박미아, 『뮤직 비디오 이야기』, 우리문화사, 1993.

- 백선기, 『보도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1995.
- 백선기·오은영, 「텔레비전과 페미니즘: TV코메디 프로그램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겨울호, 1995. pp. 404~57.
- 아더 아서버거(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역), 『대중 매체 비평의 기초』, 이론과 실천, 1990.
- 안미란, 「서울 텍스트 분석에 필요한 기호학적 모델 설정」, 전남대학교 불문과 석사학위 논문, 1987.
-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화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5.
- 오은영,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타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동연,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 세계』, 겨레, 1995.
- 이혜정,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 가치 의식에 관한 연구」, 경북대 일반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0.
- 스테판 샤프(이용관 역), 『영화 구조의 미학』, 영화언어, 1994.
- 자네트 윌프(이성훈·이현석 역), 『예술의 사회적 생산』, 한마당, 1992.
- 조주관 편, 『러시아 현대 비평 이론』, 민음사, 1993.
- 존 스토리(박모 역), 『문화 연구와 문화 이론』, 현실문화연구, 1994.
- 최준호, 「수용자 중심의 비평 방법론 모색」,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 쿠란, 쿠레비치(김지운 외 역), 『현대 언론과 사회』, 나남, 1993.
- 토도로프(최현무 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 까치, 1988.
- 테렌스 호옥스(오원교 역), 『기호학 입문』, 신아사, 1986.
- 폴 윌리스(김찬호·김영훈 역), 『교육 현장과 계급 재생산』, 민맥, 1994.
-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 문화론』, 서원, 1993.
- 현실문화연구 편,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1994.

- Grimshaw, Roser et. al., "Introduction to Ethnography at the centre," in S. Hall(ed.), *Cuture, Media, Laguage*, Hutchinson, 1980.
- Fiske. J., "Critical Response: Meaning Moment,"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6, 1988.
- , *Television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7.
- , "Television: Polysemy and Popularit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Vol. 3, 1986.
- Hammersley. Martyn, *Reading Ethnographic Research: A Critical Guide*,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0.
- Morely, David, *Television Audience and Culture Studies*, London: Routledge, 1992.